

<p>갈라디아서 서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바울의 1차 전도지역인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케 했다. 즉,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의식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다.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. 그러나 방종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봐 주신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복음의 실제적 적용을 덧붙이고 있다.

I 바울의 사도직 변호(1-2장)		
1. 사실(Fact)	2. 의미(Meaning)	3. 적용(Application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바울의 사도권 변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직접 사도직을 받았다 (1:1). ②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(1:8-9). ③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(1:10). ●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(2:20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이다 (1:4). ●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귀가 얇은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잘못된 교훈에 금방 넘어간다. ●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둔다. ●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께로 바뀐 사람이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나는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? ● 나는 거짓 교훈을 잘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? ● 나의 섬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섬김인가?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인가? ● 나는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가? ●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힌 것을 믿는가? ●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믿는가?

II 율법과 복음의 관계(3-4장)		
1. 사실(Fact)	2. 의미(Meaning)	3. 적용(Application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율법은 범법함 때문에 생긴 것이다 (3:19). ●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(3:24)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다.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(4:6)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는가? (아버지의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(3:26)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(3:29;4:7). 	신분에 따라 양자의 위치가 바뀐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그러면 나는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?
---	--	---

III 복음의 적용(5-6장)		
1. 사실(Fact)	2. 의미(Meaning)	3. 적용(Application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(5:1). ● 성령을 따라 행하라.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(5:16). ● 육체의 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더러운 것, 우상숭배, 분쟁, 분열, 방탕등(5:19-21). ● 성령의 열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하나님과의 관계(사랑, 희락, 화평) -이웃과의 관계(오래참음, 자비, 양선) -자신 안에서(충성, 온유, 절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죄의 노예처럼 살지 않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다. ● 육체의 소욕은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.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히 없어진다. 어두운 방에 불만 켜면 어두움은 사라진다. ● 진정한 사랑, 절대적 기쁨,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. ● 선천적으로 이기적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 인내하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(충성, 온유, 절제도 마찬가지다). ● 절제는 다른 모든 열매를 담는 과일 바꾸니요, 꽃바구니다 (절제가 없는 평화는 태만을 가져오고, 절제가 없는 자비나 양선은 거지근성을 키운다. 절제 없는 충성은 과로를 가져오고, 절제 없는 온유는 유약한 인간을 만든다.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사는가? 아니면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가? ● 나는 우리 교회가 죄인도 치유되고 변화 받는 성령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가?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짐을 서로 지라.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(6:2) ●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. 거둘 때가 온다 (6:10). ● 예수의 흔적을 지니라 (6:17)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뿐만 아니라 신앙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산다. ●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상급을 잃게 된다. ● 바울에게는 주를 위해 고생하고 희생한 흔적이 있었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내가 짐을 져줘야 할 지체는 없는가? ● 나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적이 없는가? ● 내 몸에는 주님을 위해 희생한 흔적이 있는가?